



가 짜揮 發 油

— 이대로 좋은가 —

朴 成 權

(서울신문社會部 · 記者)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서는 가짜揮發油란 말이 생겨났다.

가뜩이나 産油國들에 의해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로 치솟고 있는 요즘 비싼 기름 대신 쓸 수 있는 가짜揮發油라도 값만 싸다면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다. 그러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社會현상에 누적, 나타나는 후유증이 더 심각하기에 當局은 단속의 끈을 조이고 있다.

이에 비해 날로 그 뿌리를 깊게 하는 가짜揮發油는 이제 住宅街까지 파고 들었다. 한때는 시내 注油所까지 파고들어 말성을 일으켜왔던 이 가짜揮發油. 과연 이대로 좋은가? 事實態 및 양상을 벗겨 본다.

서울, 釜山, 大邱 등 전국의 主要都市 및 곳곳에 요즘들어 이 가짜揮發油가 판을 치고 있다. 이는 都市公害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후유증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專門家들은 이 가짜揮發油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公害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세력은 최근 들어 都市 변두리, 세차장, 정비공장은 물론, 住宅街까지 파고 들어 그 熱氣를 더하고 있다.

서울시내의 경우 대부분의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들은 『LPG 택시를 제외한 택시 운전기사들이 지금까지 이 가짜揮發油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해 온 적이 있다.』고 實吐한다. 한편 자가용 운전자는 이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비교적 값도 싸고 이를 사용함에 따른 직접적인 도시공해도 外部에 쉽게 나타나지 않아 「뭔가 公害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막연하게 알고 있을뿐 아무 대책없이 하루 하루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가짜揮發油의 正體는 무엇인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짜揮發油는 金屬과 고무의 溶劑인 솔벤트

에 폭발촉매제인 톨루엔, 아세톤 등 비교적 揮發性이 강한 化工藥品에다 약간의 揮發油를 섞은 것이다. 다시 말해 휘발유半 · 화학약품半 정도를 섞어 揮發油대신 사용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가짜揮發油는 「로메린」 「가스노-A」 「기원백」 등의 기발한 이름으로 이를 원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은밀하게 팔려진다. 이 경우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은 하루의 영업이 끝난 하오 11시40분쯤 이틀만이 알고 있는 단골去來處로 차를 몰고 가 다음날 쓸 이 가짜 기름을 供給받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른 운전기사의 소개로 이곳을 찾은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없다』 『잘못 알고 왔다』는 등의 이유로 문앞에서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단골운전기사와 같이 왔을땐 기꺼이 이 가짜揮發油를 供給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운전기사들은 동료지간에도 그들 스스로 이 비밀을 지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회사내에서의 入金問題 등이 다시 거론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자체에도 철저히 비밀을 지키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一部業者들은 아예 동자부,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연료절약에 관한 첨가제사용」이란 名目으로 변태허가를 얻어 공공연히 합법적으로 매매행위를 한다.

이 경우는 미리 약속된 업자와 운전기사는 아침 일찍, 혹은 밤늦게 용달차로 정기공급을 하기도 하고 한달분 先金을 먼저 받기도 한다. 또 이 운전기사들은 가짜揮發油가 가득찬 플라스틱통을 自動車 뒷 부분에 싣고 다니다가 燃料가 떨어지면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서울 4×-9 4×호 운전기사 金基德씨 (43)에 따르면, 이같은 가짜揮發油는 서울 시내의 경우 龜山區 漢南洞, 梨泰院洞, 普光洞, 道峰區 水踰洞, 泰陵 등 비교적 변두리 私設車庫나 住宅街 등에서

은밀히 제조, 점조적으로 매매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들어 이들 업자들은 당국의 단속이 느슨함을 계기로 고객유치에 나섰다. 따라서 이들 업자들간에도 경쟁은 역시 치열하다. 이들은 고객유치의 한 방법으로 요즘 기사식당등에 차잡이 청년들을 利用한다.

이들은 차잡이 청년들에게 1시간유치당 1천원내지 1천5백원의 소개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잡이들은 식사를 하러 오는 운전기사들에게 『싼기름을 넣어라』고 유혹, 혹은 직접 그 곳으로 데리고 가든지 혹은 略圖를 그려주고 『××식당 金씨(가명)에게 소개받아 왔다』고 말하라고 압호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한다.

7 億원 相當의 假油 揮發油를 만들어 팔은 尹모등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販賣行為는 대개 實刑이 宣告되는 例가 거의 없다. 有毒가스의 배출로 심각한 公害問題를 일으키는 것도 假油 揮發油다.

이같은 方法으로 假油 揮發油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경찰의 단속이 한때 強化돼 지난 81년 1월에는 치안본부에서 7억원 상당의 假油 揮發油를 만들어 팔아온 盛山사로주식회사 대표 尹正植(38등 7명)을 石油事業法및 소방법위반혐의로 구속했고 지난 4월 2일에는 大邱시경이 전국에 대리점까지 모집, 5억원 상당의 假油 揮發油를 팔아온 尹正吉씨(42등 5명)를 구속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6일에는 忠北堤川에서 차주, 주유소 업자등 50여명이 이곳에서 假油 揮發油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의 根絶을 관계기관에 진정하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이곳 堤川에서는 「가스노-A」란 이름으로 假油 揮發油가 상점등에서 공공연히 성행, 운전기사들에게 거래됐다.

한편 이들이 假油 揮發油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솔벤트·톨루엔등의 化工藥品은 주로 화공약품상에서 구입했다.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약품들은 구입할 때부터 商人들에게 노골적

으로 假油 揮發油를 만든다며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化工藥品업자들도 세탁업자나 도금업자등에게 소량으로 파는것보다 현금으로 대량을 구입하는 이들에겐 집까지 배달도 해주는등 자기들끼리의 선의의 경쟁도 벌이고 있다.

화공약품 상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中區 을지로 5가에는 언제부터인가 이 좋은 고객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는 한 상인은 『수년전부터 하루에 한 두건씩은 이 假油 揮發油제조업자들이 찾아 왔다』며 『근래 들어서는 부쩍 늘어났듯 하다』고 토로한다.

그러면 이 假油 揮發油를 사용함에 따른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학계나 관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假油 揮發油를 사용함에 따라 차의 엔진마모율도 높지만, 배출되는 有毒가스로 대기오염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의 대기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지난 80년 환경청이 전국을 상대로 조사한 전국 대기오염 측정망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도는 10일중 7일이 허가기준치인 0.05PPM을 넘어선 혼탁한 날이었고 3일만이 기준치 미만이었다. 아황산가스도 0.105PPM으로 기준치 보다 배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등 환경문제는 石油와 石炭소비의 결과로 우리의 생활환경이 말아 아닌 것이다. 음식은 50일을 안먹고도 견딜 수 있는 기록이 있고, 물은 5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나 大氣는 어떨까?

5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大氣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중요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요성은 잊어진 채, 이같은 조건으로 날이 갈수록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질 좋은 揮發油를 사용해도 매연 및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假油 揮發油를 사용함에 따른 대기오염은 어떤 것인가?

전문가들은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假油 기름이 이대로 계속되다간 「대기오염의 심각도」는 거의 치명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慶熙大 金亨錫교수(52. 대기환경문제담당)는 『솔벤트 톨루엔·아세톤등의 化工藥品은 착화점이 높고 옥탄価가 높기 때문에 진짜 揮發油보다 연소율이 매

우 낮을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는 물론,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도 많이 배출된다。」고 지적하고 『또 이 가짜揮發油를 만드는데 필요한 化學藥品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알레히드등이 많이 섞여 있고, 특히 아세톤은 눈의 각막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가짜揮發油를 사용하는 택시를 탄 승객이나 운전기사들은 눈이 시큰시큰하고 장시간 탈 경우, 머리가 아픈것이 정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택시 운전기사(서울 4×793×호) 李모씨(43)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썬맛에 이 가짜揮發油를 사용해 왔지만, 일을 마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잠이 잘 오지 않아 사용을 포기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이 운전사는 최근에는 동료운전사들에게도 이 가짜揮發油 사용을 말리고 있다면서 『까짓 돈 몇천 원에 내 건강, 승객건강을 팔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 이들 운전기사들이 가짜揮發油가 건강이나 대기오염에 결정적인 害를 끼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태여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값이 싸다는 것이 거의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入金額에 하루 24시간을 합승 등으로 무리하게 쫓기는 이들은 이 가짜揮發油를 사용함에 따라 하루 7~8천원의 수입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야 망가지든 말든 승객의 건강은 어찌 되든 말든 이 가짜揮發油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택시들은 하루 기름 소모량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40ℓ를 쓰고 있다. 揮發油는 10ℓ에 7천 4백원인데 비해 이 가짜 揮發油는 10ℓ당 5천 5백원에서 5천 3백원으로 10ℓ당 1천 9백원 정도의 차이가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은 車主의 눈을 피해 가며 단속의 손길을 피해가며 이 가짜揮發油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운전기사들도 할말이 많다. 현재의 교통법규, 그리고 사회도덕 등에다 진짜 揮發油를 사용할 경우 매일 入金額을 물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다.

택시운전사 朴모씨(27)는 『가짜 揮發油가 몸과 대기에 나쁘다는 것은 벌써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벌여 먹고 살아가는 일당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이 가짜揮發油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다. 車의 피

스톤과 揮發油밸브가 접촉되는 헤드에 간단한 부품(5백원)만 연결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또 이 가짜揮發油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現행刑法이 石油事業法이나 혹은 소방법 위반등으로 저축이 돼 實刑이 선고되는 예는 거의 없고 대량생산등이 적발되면 1~2년 實刑이 선고된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이 가짜揮發油가 우리 사회에 판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나 제조업자들의 양식에 따른 결과가 중요하다.

한편 이 가짜揮發油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식별은 육안으로 가능하다. 소음기 부분이 다른 차량에 비해 유달리 검은 것이 첫번째 특징이고 차 뒷 부분에 플라스틱통을 싣고 다니거나 경사진 길을 올라갈적에 「푸」하는 소리가 엔진에서 심하게 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내 갑신 정비소에 일하고 있는 金勝力씨(29)는 『이외에도 기름색상이 휘발유보다 하얀것이 특징』이라며, 근래 들어 이 가짜揮發油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자신의 정비공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경찰에서도 이에비해 단속의 끈은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속경찰관들은 이들의 조직이 점조적으로 서로가 철저한 약속아래 이행되는 거래이므로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지난 4월 8일 서울 C경찰서 金도수사과장 등 3명은 이들의 매매행위 정보를 입수, 다음날 새벽 4시부터 현장에서 잠복근무했으나 정보가 누설됐는지 이들을 결국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도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짜 揮發油의 공해 문제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판단,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영업용 택시를 LPG化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우디에서 매년 LPG17만톤을 수입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전국 6만 6천대의 택시중 2만 4천여대가 LPG화 했으나 아직도 이들 차량들이 구조변경에 드는 비용, 차의 수명등으로 그세가 잠시 주춤하기도 하나 일단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도 이 가짜揮發油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적발될 경우 특별소비세를 1백30%부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다소 문제가 된 이 가짜 휘발유는 LPG화로 금년내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